‘오미야게(おみやげ)’ 연구
-기원과 근원적 의미를 찾아서-

박상현*
koreaswiss@hanmail.net

<目次>

1. 들어가며
2. 여행(旅)의 성격
3. 여행객과 가족의 관계
4. ‘오미야게’의 대상
5. 마치며

主題語: 오미야게(omiyage), 여행(tabi), 여행객(tourist), 가족(family), 관계(relationship)

1. 들어가며

일본어사전의 대명사인『광사원(広辞苑)』[1]에서 ‘오미야게(おみやげ, お土産)’를 찾아보면 “미야게를 정중하게 이르는 말”[2]이라고 나와 있고, 다시 ‘미야게(みやげ)’를 살펴보면 “①여행지에서 구해서 사람에게 주는 그 토지의 산물 ②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 가져가는 선물. 간단한 선물”[3]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일본어의 어원을 설명한『일본어원대사전(日本語源大辞典)』에는 ‘오미야게’가 “①여행지·타지에서 구해서 집으로 가져오는 물건 ②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 지참하는 선물”[4]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오)미야게’에 대한『광사원』과『일본어원대사전』의 설명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사전이 해설한 ①은 타지의 특산물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주는 선물이 ‘(오)미야게’라는 것이

*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일본에서 출간된 사전(辭典) 등과 같은 것의 서명(書名)은 우리식 한자읽기로 표기하고, 인명과 지명 등은 일본식 한자읽기로 적는다. 이하, 같음.

2) 新村出 編(1998)『広辞苑 第五版』岩波書店, p.400
「土産を丁寧にいう語。」

3) 新村出 編(1998) 위의 책, p.2576
「①旅先で求め帰り人に贈る、その土地の産物。②人の家を訪問する時に持って行く贈り物。てみやげ。」

4) 前田富祺(2005)『日本語源大辞典』小学館, p.772
「①旅先・外出先で求めて、家に持ち帰る品。②他人の家を訪問する時に持参する贈り物。」

고, ②는 타인의 집을 방문할 때 들고 가는 간단한 선물이 '(오)미야게'라는 것이다. 『광사원』이 '미야게'를 설명할 때 ②에서 말하고 있듯이 '(오)미야게'는 '데미야게(てみやげ)' 곧 '간단한 선물'을 가리키기도 한다. 사전적 정의(定義)에서 '(오)미야게' ②는 ①에서 파생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오)미야게'에 대한 정의에서 살펴볼 때, ① 곧 '여행객이 타지에서 입수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주는 선물'이 '(오)미야게'라고 말할 수 있다.[5)]

그렇다면 연구자들은 '오미야게'를 어떻게 논해왔을까? 한국 학계에서 '오미야게'를 본격적으로 논한 글은 그리 많지 않지만 황달기의 「일본의 '오미야게' 개발과 지역활성화」라는 글은 주목할 만하다. 상품이라는 시각에서 '오미야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6)] 이런 관점은 남원상의 『프라하의 도쿄바나나: 오미야게 과자로 일본을 선물하다』[7)]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편 일본 학계는 '오미야게'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황달기와 남원상과 같이 '오미야게'를 상품으로 파악하여 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시다 구니코(古田久仁子)의 「향후 6차 산업화 조사대: 오미야게로 하고 싶은 6차 산업화 상품(こちら6次化調査隊: お土産にしたい6次化商品)」[8)]이 여기에 속한다.[9)] 다른 하나는 '오미야게'의 기원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오미야게'의 기원에 대해서는 간자키 노리타케(神崎宜武)의 글이, '오미야게'의 의미에 대해서는 가토 히데토시(加藤秀俊)의 글이 대표적이다. 간자키 노리타케는 '오미야게'의 역사적 기원이 에도(江戸)시대의 이세참배(伊勢参り)에 있었다고 하고,[10)] 가토 히데토시는 '오미야게'의 의미가 이웃이나 친척이 제공했던 전별금에 대한 여행객의 답례(答禮)였다고 말한다.[11)]

황달기와 남상원 그리고 요시다 구니코 등이 제시한 시각, 곧 '오마야게'를 상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오미야게'를 새로운 각도에서 논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한편 간자키 노리타케와 가토 히데토시가 논한 선행연구는 '오마야게'를 연구하는 데 기본이 되는 방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귀중한 성과다.

'오미야게'에 대한 기존 연구 가운데 본고에서는 '오미야게'의 기원과 그 의미에 대해 논했던 간자키 노리타케와 가토 히데토시의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한다. 간자키 노리타케는 에도시대에 중점을 두면서 '오미야게'의 기원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오미

---

5) '오미야게'는 '미야게'를 정중하게 부른 말이다. 본고에서는 앞으로 '미야게'와 '오미야게'를 통일하여 '오미야게'로 부른다.
6) 황달기(2017)「일본의 '오미야게' 개발과 지역활성화」『일본어문학』한국일본어문학회, pp.423-440
7) 남원상(2018)『프라하의 도쿄바나나: 오미야게 과자로 일본을 선물하다』따비, pp.17-18
8) '차화(次化)'는 '산업화(産業化)'를 의미한다.
9) 古田久仁子(2017)「こちら6次化調査隊: お土産にしたい6次化商品」『農耕と園藝』誠文堂新光社, p.101
10) 神崎宜武(1997)『おみやげ』青弓社, pp.139-148
11) 加藤秀俊(1976)『日本人の生活』研究社, pp.174-177

야게’의 기원은 좀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토 히데토시는 ‘오미야게’의 의미가 전별금에 대한 여행객의 답례라고 말한다. 타당한 지적이기는 하지만 ‘오미야게’의 의미에는 보다 근원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오미야게’의 기원과 더불어 ‘오미야게’에 포함되어 있는 근원적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여행(たび, 旅)[12]의 성격을 알아본다. ‘오미야게’의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오미야게’의 탄생은 여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행객과 가족의 관계를 살펴본다. ‘오미야게’는 타지로 길을 떠나는 여행객과 고향에 남아 있는 가족 사이에서 생겨난 선물이기 때문이다. 셋째, ‘오미야게’의 대상이 무엇이었나를 살펴본다. ‘오미야게’의 근원적 의미와 관련 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여행(旅)의 성격

오늘날 여행(旅行)이라는 말은 유람이나 관광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성격이 달라진다. 고대 일본에서 여행이란 위험한 것이었고, 비일상적인 경험[13]이었다. 이런 고대 일본의 여행(旅)이 보여주는 성격에 대해 가토 히데토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고대 일본의 여행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여행이 대부분 정치나 군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리, 변방으로 향하는 병사- 소위 여행이라는 것은 하나 같이 정복여행이고, 여행처는 적지였다. ····· 군사적인 여행만이 아니다. 어찌되었든 **오래 살던 곳에서 일단 벗어나면 언제 어디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짐작할 길이 없다.**[14]

위 인용문에 나와 있듯이 당시 어떤 사람이 정든 고향을 떠나 타지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그가 살아서 돌아올 지 어떨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만큼 고대 일본에서 여행이란 위험한 것이었다.

고대 일본에서 여행이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은 7-8세기에 성립된 현존하는 가장

12) 일본어 ‘旅(たび)’와 ‘旅行(りょこう)’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모두 ‘여행’이다. 따라서 본고에서그 의미를 구분할 때는 한자를 각각 병기한다. 또한 본고에서 자주 언급하는 ‘여행’은 일본어 ‘旅(たび)’를 가리킨다.
13) 우메사오 다다오 저·김양선 역(2001)『일본인의 생활』혜안, p.213
14) 우메사오 다다오 저·김양선 역(2001) 위의 책, pp.209-210
진하게와 밑줄 같은 강조 표시는 인용자. 이하 같음.

오래된 시가집(詩歌集)인『만엽집(万葉集)』에 남아 있는 와카(和歌)[15]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권20·4406번 노래(歌)를 살펴보자. 여기서 여행객은 '여행은 괴롭다고(旅は苦しと)' 읊으면서, 당시의 여행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직설적으로 말한다.

권20·4406번[16]
【한국어역】
나의 집으로요 가는 사람 없는가 (쿠사마쿠라)[17] **여행은 괴롭다고** 알려 주고 싶다네
【한자·가나혼합문】[18]
わが家ろに 行かも人もが 草枕 **旅は苦しと** 告げ遣らまくも

또한『만엽집』에는 '여행(旅)'을 수식하는 마쿠라코토마로 '구사마쿠라(草枕)' 곧 '풀베개'[19]라는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여기에도 여행의 고단함과 위험성이 드러나 있다. 예컨대 권2·142번 노래가 그렇다.

권2·142번[20]
【한국어역】
집에 있다면은 그릇에 담을 밥을 **(쿠사마쿠라) 여행길**에 있느니 밤나무 잎에 담네
【한자·가나혼합문】
家にあれば 笥に盛る飯を **草枕 旅**にしあれば 椎の葉に盛る

이 노래에 대해 이연숙은

15) 와카는 5음(音)·7음·5음·7음·7음으로 구성된 정형시다. 거칠게 말하면 와카는 크게 단가(短歌)와 장가(長歌)로 구분할 수 있다. 5음·7음·5음·7음·7음, 곧 31음으로 된 노래는 단가, 그 이상은 장가라고 보면 된다.
16) 이연숙 역해(2018)『한국어역 만엽집-권19·권20』박이정, pp.300-301
『만엽집』의 한국어역을 제시할 때는 이연숙의 번역을 차용한다. 졸역을 서술하기보다는 선학의 연구성과를 존중하는 것이 후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연숙의 한국어역에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간혹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17) 이연숙은 '쿠사마쿠라'라고 표기했다.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구사마쿠라'라고 적어야 한다. 이와 같은 오기(誤記)는 마쿠라코토바(枕詞)를 우리말로 적을 때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た'가 초성일 때는 '다'로 적어야 하는데 '타'로 한다든지, 'つ'는 '쓰'로 해야 하는데 '츠'로 한다든지 하고 있다. 이들 표기는 잘못됐지만 인용문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그대로 차용한다.
18) 漢字仮名交じり文
19) 객지에서 풀을 베개로 삼아 잠을 청한다는 의미다.
20) 이연숙 역해(2012)『한국어역 만엽집-권1·권2』박이정, pp.200-201

> 만약 집에 있다면 밥그릇에 담아서 먹을 밥을, 풀을 베개 삼아서 밖에서 자는 여행길에 있으니, 밥을 밤나무 잎에 담아서 먹네라는 내용이다. **여행길의 불편함을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니라,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아내와 집에 대한 애잔한 그리움을 말하고 있다.**[21]

고 해설한다.

이와 같이 당시의 여행은 괴로운 것이었고, 여행객에게는 죽음이 늘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만엽집』권3·415번 노래다.

> 권3·415번[22]
> 【한국어역】
> **집**에 있다면은 아내 팔을 벨 것을 풀베개 베는 **여행**하다 쓰러진 여행객이여 아아
> 【한자·가나혼합문】
> **家**にあらば 妹が手まかむ 草まくら **旅**に臥せる この旅人あはれ

쇼토쿠(聖徳)태자가 읊었다고 하는 이 작품에는 ‘집(家)’과 ‘여행(旅)’이 대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집(고향)에 있었다면 아내 팔베개를 하며 자고 있을 사람이 여행을 떠나 객사하여 지금 산에 쓰러져 있다는 말이다. 당시 여행이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나 지금이나 객사는 좋은 죽음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그래서 객사한 사람을 목격한 사람은 노래를 불러 그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했다.[23]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의 영혼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쇼토쿠태자는 다쓰다산(龍田山)에서 객사한 사람을 보고 노래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타지에서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노래를 보통 ‘행로사인가(行路死人歌)[24]’라고 부른다.

『만엽집』에는 ‘행로사인가’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권9·1800번 노래가 있다. 이 작품은 다나베노 사키마로(田辺福麻呂)가 객사한 사람을 위로하며 지은 장가(長歌)다. 객사한 장소는 산고개로 앞서 언급했던 권3·415번 노래와 비슷하다.

---

21) 이연숙 역해(2012) 앞의 책, p.201
22) 이연숙 역해(2012)『한국어역 만엽집-권3』박이정, pp.208-209
23) 현대 일본에서는 ‘노래’ 대신에 헌화(献花)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나왔을 때는 사고 현장에 국화 등을 놓는다.
24) 福田武史 編(2002)『万葉集を読むための基礎百科』学灯社, p.162

권9·1800번[25)]

【한국어역】

…… 지금이라도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도요 아내도 만나려고 생각하면서 돌아왔을 그대는 (토리가나크) 아즈마(東)의 나라의 무시무시한 신이 있는 **고개에** 좋은 영을 싼 옷도 추울 정도로 (누바타마노) 머리 헝클어져서 고향 물어도 고향 말하지 않고 집을 물어도 집도 말하지 않고 **용감한 남자 고향 그리는 맘에 여기에 누워 있네**

【한자·가나혼합문】

…… 今だにも 国に罷りて 父母も 妻をも見むと 思ひつつ 往きけむ君は 鳥が鳴く 東し国の 恐きや 神し**御坂に** 和霊の 衣寒らに ぬばたまの 髪は乱れて 国問へど 国をも告らず 家問へど 家をも言はず **大丈の 行きのすすみに 此所に臥せる**

한편 객사한 장소는 산이나 산고개만이 아니었다. 아래 권2·220번 노래와 같이 해변에서도 객사한 사람이 나왔다. 이 작품은 익사한 사람을 보고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柿本人麻呂)가 지은 장가다.

권2·220번[26)]

【한국어역】

…… 이름 좋은 사미네(狭岑)섬에 있는 자갈밭에다 임시 집 짓고 보니 **파도 소리가 끊임없는 해안을 (시키타헤노) 베개는 고사하고 거친 돌 침상 위에 누웠는 그대** 집을 안다면 가서 알려줄 텐데 처가 안다면 와서 말도 걸 텐데 (타마보코노) 길도 알지 못하고 마음 쓰면서 기다리고 있겠지 사랑스런 아내는

【한자·가나혼합문】

…… 名くはし 狭岑の島の 荒磯面に いほりてみれば **波の音の 繁き浜べを 敷栲の枕になして 荒床に 自伏す君が** 家知らば 行きても告げむ 妻知らば 来も問はましを 玉桙の 道だに知らず おほほしく 待ちか恋ふらむ 愛しき妻らは

이 작품에서 가키노모토노 히토마로는 익사한 사람의 집(고향)을 알 수 있다면 객사했다는 사실을 그의 가족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고 노래한다. 또한 객사한 자의 아내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남편을 애처롭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애석해 하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고 있다.

다음 작품인 권13·3339번 노래도 해변에서 객사한 사람을 다룬 작품이다. 쓰키노 오미노

25) 이연숙 역해(2014)『한국어역 만엽집-권9』박이정, pp.200-201
26) 이연숙 역해(2012) 앞의 책(『한국어역 만엽집-권1·권2』), pp.294-295

오비토(調使首)가 지었다.

권13·3339번[27)]

【한국어역】

····· 첩첩한 파도 밀려드는 해변에 높은 산을요 방풍벽으로 하고 **바다 해초를 베개로 하고서는 무심하게도 누워 있는 그대는** 부모에게는 사랑스러운 아이겠지 (와카쿠사노) 아내도 있겠지요 집을 물어도 집 가는 길 말 않고 이름 물어도 이름도 말하잖고 누구의 말을 안타깝게 여겼나 높은 파도가 무서운 바다를요 바로 건너려 했나

【한자·가나혼합문】

····· 重波の 寄する浜辺に 高山を 隔てに置きて **沖つ藻を 枕に纏きて うらも無く 偃せる君は** 母父が 愛子にもあらむ 若草の 妻もあらむと 家問へど 家道もいはず 名を問へど 名だにも告らず 誰が言を いたはしみかも とゐ波の 恐き海を 直渡りけむ

지금까지 예시한『만엽집』에 실려 있는 권3·415, 권9·1800, 권2·220, 권13·3339번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 일본에서 여행은 지금과 같은 유람이나 관광이 아니었다. 죽음을 각오한 괴롭고 힘든 것이었다.

그렇다면 타지로 향하는 여행객과 고향에 남아 있는 가족은 서로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관계를 보였을까?

3. 여행객과 가족의 관계

『만엽집』권15에는 신라(新羅)로 파견되는 사신과 그들을 떠나보내는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노래인 증답가(贈答歌)가 실려 있다. 이들 작품을 살펴보면 여행객과 가족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몇 수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권15·3578번 아내의 노래[28)]

【한국어역】

무코(武庫)의 포구의 이리에(入江)의 물가 새 날개로 덮던 **그대를 이별하니 그리워 죽겠지요**

27) 이연숙 역해(2017)『한국어역 만엽집-권13·권14』박이정, pp.162-163
28) 이연숙 역해(2017)『한국어역 만엽집-권15·권16』박이정, pp.22-23

【한자·가나혼합문】
武庫の浦の 入江の渚鳥 羽ぐくもる **君を離れて 恋に死ぬべし**

권15·3579번 남편의 노래[29)]
【한국어역】
크나큰 배에 만약 **아내가 타는 것이라고 하면 날개로 덮어서는 데리고 갈 것인데**
【한자·가나혼합문】
大船に **妹乗るものに あらませば 羽ぐくみ持ちて 行かましものを**

권15·3578번 노래에서 신라로 떠나는 남편이 그리워 죽겠다고 아내가 말하자, 권15·3579번 노래에서 남편은 함께 떠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화답(和答)하고 있다.

권15·3580번 아내의 노래[30)]
【한국어역】
그대가 가는 바닷가의 숙소에 안개가 끼면 **내가 탄식을 하는 숨이라 알아줘요**
【한자·가나혼합문】
君が行く 海辺の宿に 霧立たば **吾が立ち嘆く 息と知りませ**

권15·3581번 남편의 노래[31)]
【한국어역】
가을이 되면 서로 만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안개가 낄 정도로 탄식을 하시나요
【한자·가나혼합문】
秋さらば 相見むものを 何しかも 霧に立つべく 嘆きしまさむ

권15·3580번 노래에서 아내가 남편과 헤어지는 아픔을 노래하자, 권15·3581번 노래에서 남편은 곧 만날 수 있으니 탄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아내를 위로하고 있다.

권15·3582번 아내의 노래[32)]
【한국어역】
크나큰 배를 험한 바다에 내어 가시는 **그대 아무런 탈 없이 빨리 돌아오세요**

29) 이연숙 역해(2017) 앞의 책(『한국어역 만엽집-권15·권16』), pp.24-25
30) 이연숙 역해(2017) 앞의 책(『한국어역 만엽집-권15·권16』), pp.24-25
31) 이연숙 역해(2017) 앞의 책(『한국어역 만엽집-권15·권16』), pp.26-27
32) 이연숙 역해(2017) 앞의 책(『한국어역 만엽집-권15·권16』), pp.26-27

【한자·가나혼합문】
大船を 荒海に出し います**君 障むことなく 早帰りませ**

권15·3583번 남편의 노래[33]
【한국어역】
무사하라고 아내가 빈다면요 바다의 파도 천 겹으로 일어도 무슨 탈이 있을까요
【한자·가나혼합문】
真幸くて 妹が斎はば 沖つ波 重に立つとも 障りあらめやも

권15·3582번 노래에서 아내는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고, 권15·3583번 노래에서 남편은 아내가 나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준다면 무사히 귀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다.

권15·3584번 아내의 노래[34]
【한국어역】
헤어진다면 마음이 슬프겠죠 나의 옷을요 속에 입어 주세요 직접 만날 때까지는
【한자·가나혼합문】
別れなば うら悲しけむ 吾が衣 下にを着ませ 直に逢ふまでに

권15·3585번 남편의 노래[35]
【한국어역】
나의 아내가 속에라도 입으라 보내주었던 옷의 끈을 말이죠 내가 풀 것인가요
【한자·가나혼합문】
吾妹子が 下にも着よと 贈りたる 衣の紐を 吾解かめやも

권15·3584번 노래에서 이별을 슬퍼하는 아내는 재회할 때까지 내가 준 속옷을 잘 간직해 달라고 남편에게 당부하고, 권15·3585번 노래에서 남편은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권15·3587번 아내의 노래[36]
【한국어역】
(타쿠부스마) 신라국으로 가는 **그대 만날 날 오늘 내일 하면서 삼가며 기다리죠**

33) 이연숙 역해(2017) 앞의 책(『한국어역 만엽집-권15·권16』), pp.26-27
34) 이연숙 역해(2017) 앞의 책(『한국어역 만엽집-권15·권16』), pp.28-29
35) 이연숙 역해(2017) 앞의 책(『한국어역 만엽집-권15·권16』), pp.28-29
36) 이연숙 역해(2017) 앞의 책(『한국어역 만엽집-권15·권16』), pp.30-31

【한자·가나혼합문】
栲衾 新羅へいます **君が目を 今日か明日かと 斎ひて待たむ**

권15·3588번 남편의 노래[37)]
【한국어역】
아득히 멀리 생각이 되는군요 그렇지만도 이상한 마음일랑 나는 갖지 않아요
【한자·가나혼합문】
はろはろに 思ほゆるかも 然れども 異しき心を 吾が思はなくに

권15·3587번 노래에서 아내는 근신하면서 남편을 기다리겠다고 하자, 권15·3588번 노래에서 남편은 일편단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노래한다.

방금 살펴본 신라로 떠나는 남편과 그를 떠나보내는 아내가 서로 주고받은 증답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헤어지는 아픔을 노래하며 상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권15·3582번-3583번의 증답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내는 '그대 아무런 탈 없이 빨리 돌아오세요'(권15·3582번)라고 말하며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고, 남편은 '무사하라고 아내가 빈다면요'(권15·3583번)라고 노래하면서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면 반드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한다는 것이다.

결국 여행객과 가족은 서로를 그리워한다. 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안전을 기원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안전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다. 앞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고대 일본에서 여행이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와 같은 여행객과 가족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리고 여행객과 가족 사이에 상대방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심정은 '이하후(斎はふ)'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 미사키 히사시(身崎壽)는 '이하후'에 대해

> 원뜻은 경사(吉事)를 초래하기 위해 부정을 씻고 삼가는 것. **여행을 떠난 근친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해서** 묶은 속옷의 끈을 그대로 풀지 않고 지킨다든지 집안을 그때 그대로 보존해서 먼지를 털지 않고 둔다든지 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38)]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하후'가 나오는 노래를 좀 더 검토하여 '이하후'를 통해 알 수 있는 여행객과

37) 이연숙 역해(2017) 앞의 책(『한국어역 만엽집-권15·권16』), pp.30-31
38) 稲岡耕二作·橋本達雄 編(1982)『万葉の歌ことば辞典』有斐閣選書, p.41

가족의 관계를 살펴보자,

『만엽집』권20에는 ‘병사의 노래(防人歌)’가 있다. ‘병사의 노래’는 고대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당 연합군에 백제와 왜군은 패배했다. 이로써 백제는 멸망하게 되고, 왜는 나·당 연합군이 일본 열도까지 쳐들어 올 것을 경계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의 기타큐슈(北九州)의 방위를 강화하게 되는데, 그 임무를 맡게 된 병사(防人)들이 남긴 노래가 ‘병사의 노래’다. 755년의 일이다. 『만엽집』에는 국방의 의미를 맡고 임지로 떠나는 병사들과 그들 가족이 읊은 노래가 84수(首)나 실려 있다. 이들 가운데 여행객과 가족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이하후’가 나와 있는 노래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을 대표해서 아버지가 임지를 떠나는 병사인 아들의 안전을 바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차는 칼이라도 돼서 사랑하는 아들을 늘 지켜주고 싶다고 노래한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다.

권20·4347번 아버지 노래[39)]

【한국어역】

집에 남아서 그리워하기보다는 네가 차고 있는 큰 칼이 되어서는 **지켜주고 싶다**

【한자·가나혼합문】

家にして 恋ひつつあらずは 汝が佩ける 大刀になりても **斎ひてしかも**

한편 타지로 떠나는 병사는 고향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녕을 기원한다. 권20·4350번 노래는 병사가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가족의 안녕을 바라고 있다.

권20·4350번[40)]

【한국어역】

정원의 안의 아수하(阿須波)[41)]의 신에게 나무 바치고 **나는 재계를 하자**

돌아올 때까지요

【한자·가나혼합문】

庭中の 阿須波の神に 小柴さし **あれは斎はむ** 帰り来までに

또한 권20·4372번 노래도 병사가 가족의 안녕을 기도하는 작품이다.

---

39) 이연숙 역해(2018)『한국어역 만엽집-권19·권20』박이정, pp.244-245

40) 이연숙 역해(2018) 앞의 책(『한국어역 만엽집-권19·권20』), pp.246-247

41) 곡물신인 오토시노카미(大年神)의 아들이다.

권20·4372번[42]

【한국어역】

아시가라(足柄)의 고개[43]를 받아서는 돌아보잖고 나는 넘어서 가네 거친 남자도 넘기가 힘들다는 후와(不破) 관문[44]을 넘어서 나는 가네 (무마노츠메) 츠쿠하(筑紫)의 끝에서 멈추고 있네 **나는 삼가 지키자 여러 사람들 무사하라고 비네 돌아갈 때까지는**

【한자·가나혼합문】

足柄の み坂たまはり 顧みず 我は越え行く 荒し男も 立しや憚る 不破の関 越えて我は行く 馬の蹄 筑紫の崎に 留り居て **我は斎はむ 諸は 幸くと申す**

帰り来までに

방금 살펴본 '이하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여행객과 가족은 이별의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앞으로 보지 못할 상대를 서로 그리워하고 있다. 둘째,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안전하기를 신에게 서로 기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행객과 가족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상호 공감적 관계'[45]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호 공감적 관계로 맺어져 있는 여행객이 드디어 고향으로 무사히 귀환할 때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을까? 곧 어떤 '오미야게'를 가족에게 건네주려고 했을까?

4. '오미야게'의 대상

앞서 언급했듯이 『만엽집』의 권15에는 신라로 떠나는 사신과 그를 떠나보내는 가족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권15·3627번은 타지로 떠나는 사신이 집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며 지은 노래인데, 여기에는 고대 일본에서 '오미야게'가 어떤 것이었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장가곧 긴 노래이기에 군데군데 생략하면서 인용한다.

---

42) 이연숙 역해(2018) 앞의 책(『한국어역 만엽집-권19·권20』), pp.268-269

43) 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서 시즈오카현(静岡県)으로 넘어가는 고개

44) 기후현(岐阜県)에 있었던 관문

45) 고노시 다카미쓰는 여행객과 가족의 관계를 '공감적 관계(共感的関係)'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용어보다는 '상호 공감적 관계'라는 표현이 이들의 관계 곧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상호 공감적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神野志隆光(1973)『柿本人麻呂研究』塙書房, pp.377-380

권15·3627번[46]

【한국어역】

아침이 되면 아내가 손에 쥐는 거울과 같은 미츠(御津)의 해변에서 크나큰 배에 노를 많이 달고는 신라 나라로 건너가려고 하여 ····· 아침뜸에는 배를 출발시키려 사신 일행도 사공도 소리 맞춰(니호도리노) 부침하여 가면은 ····· 타마(玉)의 포구에 배를 정박시키고 해안 쪽에서 포구의 바위를 보며 (나쿠코나스) 소리 내어 울었네 바다의 신이 손에 감았던 **진주 선물로 하여 아내에게 보내려 주워가지고 소매에 넣지만**

·····

【한자·가나혼합문】

朝されば 妹が手に纏く 鏡なす 御津の浜びに 大船に 真楫繁貫き 韓国に 渡り行かむと ····· 朝凪に 船出をせむと 船人も 水手も声よび 鳥鳥の なづさひ行けば ····· 玉の浦に 船を停めて 浜びより 浦礒を見つつ 泣く兒なす 哭のみし泣かゆ 海神の 手纏の**玉を 家苞に 妹に遣らむと 拾ひ取り 袖には入れて** ·····

위 작품에서 여행객은 고향에 돌아갈 때 아내에게 ‘오미야게’로 진주를 주고 싶다고 노래한다. 여기서 ‘오미야게’를 가리키는 말로 ‘이헤즈토(家づと, 家苞)’가 나온다. 이 ‘이헤즈토’에 대해 『시대별국어대사전 상대편(時代別国語大辞典 上代編)』은 “집(고향)으로 가져가는 오미야게”[47]라고 정의한다.

여행객이 고향으로 무사히 귀환할 때 가족에게 ‘오미야게’로 진주를 건네고 싶다는 것은 권20에 수록되어 있는 ‘병사의 노래’에도 나온다.

권20·4340번[48]

【한국어역】

부모님이여 삼가며 기다려요 츠쿠시(筑紫)의요 물속에 잠긴 **진주 가지고 올 때까지**

【한자·가나혼합문】

父母え 斎ひて待たね 筑紫なる 水漬く**白玉 取りて来までに**

여행객이 가족에게 ‘오미야게’로 주고 싶었던 것은 진주뿐만이 아니다. 패(貝) 곧 조개껍질도 ‘오미야게’가 됐다. 아래의 권15·3709번은 신라로 가는 사신이 읊은 노래이고, 권20·4411번

46) 이연숙 역해(2017) 앞의 책(『한국어역 만엽집-권15·권16』), pp.61-63

47) 上代語辞典編修委員会 編(1992)『時代別国語大辞典 上代編』三省堂, p.97
「家へのみやげ。」

48) 이연숙 역해(2018) 앞의 책(『한국어역 만엽집-권19·권20』), pp.238-239

은 ‘병사의 노래’다.

권15·3709번[49]
【한국어역】
집의 선물로 조가비를 줍느라 바다 쪽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소매 젖어 버렸네**
【한자·가나혼합문】
家づとに 貝を拾ふと 沖辺より **寄せ来る波に 衣手濡れぬ**

권20·4411번[50]
【한국어역】
집의 선물로 조개껍질을 주웠네 **해변 파도는 한층 계속 하여서 높이 밀려오지만**
【한자·가나혼합문】
家裏[51]に 貝ぞ拾へる **浜波は いやしくしくに 高く寄すれど**

권15·3709번 노래에서 객지에 있는 사신은 밀려오는 파도에 소매가 젖는데도 불구하고 조개껍질을 줍고 있고, 권20·4411번 노래에서 타지에 있는 병사도 파도가 높게 밀려오는 위험을 무릅쓰고 조개껍질을 줍고 있다. 모두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오미야게’로 주기 위함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무라세 노리오(村瀬憲夫)는 만엽(万葉)시대에 ‘오미야게’가 됐던 대상에 대해

> **만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여행(旅)은 드문 경험이었다. 그래서 여행하는 도중에 일상생활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진귀한 풍경을 마주했을 때 여행객들은 그것을 미야게로하려고 했고** 고향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또한 가족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52]

라고 말한다.

무라세 노리오도 지적하고 있지만 여행객들은 일상생활에게 보기 힘든 것에 흥미를 느껴 그것을 고향에 가지고 가려고 했다. 이런 진귀한 것에는 앞서 인용한 작품에 나오는 진주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 있다. 그런데 조개껍질도 훌륭한 ‘오미야게’가 됐다.

---

49) 이연숙 역해(2017) 앞의 책(『한국어역 만엽집-권15·권16』), pp.138-139
50) 이연숙 역해(2018) 앞의 책(『한국어역 만엽집-권19·권20』), pp.308-309
51) 이연숙은 ‘집의 선물’을 ‘가리(家裏)’라고 표기했지만 이것은 ‘가쯔(家苞)’를 잘못 적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연숙 역해(2018) 앞의 책(『한국어역 만엽집-권19·권20』), p.308
52) 稲岡耕二作·橋本達雄 編(1982) 前揭書, p.225

만엽시대의 수도는 헤조쿄(平城京)였다. 지금의 나라시(奈良市)에 해당한다. 이곳은 해안가와 떨어져 있는 내륙에 위치한다. 따라서 바닷가에서 구할 수 있는 조개껍질은 당시의 여행객과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는 멋진 ‘오미야게’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오미야게’는 여행객이 타지에서 입수한 진귀한 물건이었고, 여행객이 가족에게 그 ‘오미야게’를 주는 행위는 그의 안전을 기원해준 이들에 대한 사랑 곧 감사의 표시였다고 볼 수 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오미야게’의 기원과 거기에 내포하고 있었던 근원적 의미를 살펴봤다. 고대 일본에서 여행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것이었다. 일본에서 여행이 널리 확산된 것은 에도시대에 본격화 된 이세참배라는 성지(聖地) 순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간자키 노리타케는 에도시대에 중점을 두어 ‘오미야게’의 기원을 논했던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펴봤듯이 ‘오미야게’의 기원은 만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가토 히데토시는 ‘오미야게’의 의미가 전별금에 대한 여행객의 답례라고 지적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미야게’에는 보다 근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여행객과 고향에 남겨져 있는 가족은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고 상대방의 안녕을 기원하는 상호 공감적 관계에 있었다. 이런 심정은 이미 앞에서 자세히 검토했던 ‘이하후’라는 가어(歌語)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이에 고향으로 무사히 귀환하게 된 여행객이 자신의 안녕을 기원해준 가족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여행객은 타지에서 입수한 진귀한 물건을 ‘오미야게’로 가족에게 건네면서 그 고마움을 표했다. 여행객의 안전을 기원해준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바로 ‘오미야게’에 들어 있는 근원적 의미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우메사오 다다오 저·김양선 역(2001)『일본인의 생활』혜안, p.213
남원상(2018)『프라하의 도쿄바나나: 오미야게 과자로 일본을 선물하다』따비, pp.17-18
이연숙 역해(2012)『한국어역 만엽집-권1·권2』박이정, pp.200-201
_____ (2012)『한국어역 만엽집-권3』박이정, pp.208-209
_____(2014)『한국어역 만엽집-권9』박이정, pp.200-201

_____(2017)『한국어역 만엽집-권13·권14』박이정, pp.162-163
_____(2017)『한국어역 만엽집-권15·권16』박이정, pp.24-25
_____(2018)『한국어역 만엽집-권19·권20』박이정, pp.300-301
황달기(2017)「일본의 '오미야게' 개발과 지역활성화」『일본어문학』한국일본어문학회, pp.423-440
稲岡耕二作·橋本達雄 編(1982)『万葉の歌ことば辞典』有斐閣選書, p.41
加藤秀俊(1976)『日本人の生活』研究社, pp.174-177
神崎宜武(1997)『おみやげ』青弓社, pp.139-148
神野志隆光(1973)『柿本人麻呂研究』塙書房, pp.377-380
新村出 編(1998)『広辞苑 第五版』岩波書店, pp.400-2576
上代語辞典編修委員会 編(1992)『時代別国語大辞典 上代編』三省堂, p.97
前田富祺(2005)『日本語源大辞典』小学館, p.772
福田武史 編(2002)『万葉集を読むための基礎百科』学灯社, p.162
古田久仁子(2017)「こちら6次化調査隊: お土産にしたい6次化商品」『農耕と園藝』誠文堂新光社, p.101

논문투고일 : 2020년 03월 19일
심사개시일 : 2020년 04월 17일
1차 수정일 : 2020년 05월 06일
2차 수정일 : 2020년 05월 13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5월 20일

＜要旨＞

‘오미야게(おみやげ)’ 연구

－기원과 근원적 의미를 찾아서－

박상현

본고에서는 ‘오미야게’의 기원과 더불어 거기에 내포하고 있었던 근원적 의미를 살펴봤다. 고대 일본에서 ‘여행(旅)’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것이었다. 일본에서 여행이 널리 확산된 것은 에도시대에 본격화 된 이세(伊勢)참배라는 성지(聖地) 순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오미야게’의 기원을 에도시대에서 찾기 쉽다. 하지만 본고에서 고찰했듯이 ‘오미야게’의 기원은 만엽(万葉)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한편 ‘오미야게’의 의미에는 전별금에 대한 여행객의 답례가 들어 있다. 하지만 ‘오미야게’에는 보다 근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여행객과 가족은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고 상대방의 안녕을 기원하는 상호 공감적 관계에 있었다. 이런 심정은 ‘이하후’라는 어휘에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고향으로 무사히 귀환하게 된 여행객이 자신의 안녕을 기원해준 가족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에 여행객은 타지에서 입수한 진귀한 물건을 ‘오미야게’로 가족에게 건네면서 그 고마움을 표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오미야게’에 들어 있는 근원적 의미라고 생각한다.

Study on ‘omiyage’

－In search of origin and original meaning－

Park, Sang-Hyun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the origin of ‘omiyage’ and its original meaning. In ancient Japan, ‘tabi(travel)’ was a difficult thing with danger. It is true that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pilgrimage to the holy land called Ise worship, which began in the Edo period when travel began to spread widely in Japan. Therefore, it is easy to find the origin of ‘Omiyage’ in the Edo period. However, as we considered in this paper, the origin of ‘omiyage’ could be traced back to the Manyo era. On the other hand, the meaning of ‘omiyage’ includes a return to the farewell gift. However, ‘omiyage’ has a more original meaning. Travelers and families are in a mutually sympathetic relationship, worrying about each other’s safety and wishing each other’s well-being. Therefore, it is enough to know that the traveler who returned home safely had an infinite gratitude to the family who wished for his well-being. As a result, travelers expressed their gratitude by handing a rare item obtained from another place to the family as ‘omiyage’. I think this appreciation is the original meaning of ‘omiyage’